

전북현대, 오늘 멜버른과 AFC 16강전

홈에서 맞대결 비기기만 해도 8강 진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24일 홈에서 호주 멜버른 빅토리를 상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른다.

조별 예선에서 당당하게 1위로 16강을 진출했던 전북은 지난 17일 멜버른 빅토리의 홈구장인 랙탱글러 스타디움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어렵기로 소문난 호주 원정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무승부를 거둔 덕분에 0대0으로 비기기만 해도 원정 다득점 규정에 따라 8강에 진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지만 왕좌의 길목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봤던 전북은 이번시즌만은 반드시 우승한다는 각오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1일 전남과의 리그경기 역시 주전 선수 대부분을 선발 제외시키며 경기에 임한 바 있다.

덕분에 베스트 스쿼드로 호주 원정에 참여하게 된 전북은 최진방 이동국을 선봉으로 최근 폼이 좋은 김보경과 이재성, 레오나르도 등 화려한 공격진을 구성해 멜버른을 공략할 예정이다.

전북의 최강의 감독은 "2차전을 치를 선수들의 체력은 충분히 회복된 상태이다"며 "더욱이 전남전에서 호주원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활약으로 선수단 사기 또한 올라갔기 때문에 2차전을 홈에서 확실히 제압하는 경기력으로 홈 팬들에게 시원한 승리를 선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선수들의 어린이 양말 선물 시리 즈역시 멜버른과의 홈경기에서 계속된다. 이번에는 호주 출신의 파키투의 어린이 양말 선물이 초, 중, 고생들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늘 홈에서 호주 멜버른 빅토리를 상대로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른다.



익산시, 게이트볼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 진행

익산시는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에 다채로운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일에는 제20회 익산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익산시 게이트볼협회(회장 류광열) 주관으로 합열 게이트볼구장에서 어르신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친목과 우의를 다지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21일에는 제13회 서동무양기 전국특공무술대회가 익산시특공무술연합회(회장 김종비) 주관으로 실내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참여하여 성대하게 열렸다.

21일과 22일에는 대중스포츠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제12회 익산시장기 축구대회가 익산시축구협회(회장 김병찬) 주관으로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47개팀 1,200여명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열렸다.

22일에는 제5회 익산시장기 야구대회가 익산시야구협회 주관으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스트리아 열렸다. 시 관계자는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삶의 활력을 쫓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익산=장영원기자

NBA 오클라호마, 서부 결승 골든스테이와 3차전 대승

133-105 듀란트-웨스트브룩 활약 2차전 패배 설욕 전적 2승1패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63점을 합작한 '나이나이 듀오'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의 활약을 앞세워 안방에서 승리하며 시리즈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 체서 피크 에너지 아레나에서 펼쳐진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서부 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3차전에서 133-105로 대승을 거뒀다.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치른 3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오클라호마 시티는 2차전 패배를 설욕하는 동시에 시리즈 전적 2승1패로 앞서게 됐다.

듀란트는 32분여를 뛰며 33점 8리바운드로 공격을 주도했다. 야투 15개를 던져 10개를 성공시켰다. 자유투는 12개를 얻어 모두 람에 넣었다.

웨스트브룩도 30점과 함께 12어시스트와 8리바운드로 트리플 더블에 리바운드 2개가 모자라는 활약을 펼쳐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이날 오클라호마 시티 선수들은 37개의 자유투를 얻어 33개를 성공시키며 90%(89.2%)에 육박하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1쿼터부터 공격력이 불을 뿜은 양팀은



오클라호마 시티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 체서 피크 에너지 아레나에서 펼쳐진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서부 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3차전에서 133-105로 대승을 거뒀다.

빠른 공수 전환으로 득점을 주고 받았다. 듀란트가 1쿼터에만 11점을 넣으며 34-28로 오클라호마 시티가 리드를 가져갔다.

골든스테이트는 2쿼터 시작과 함께 안드레 이귀달라의 3점포와 이안 클라크의 득점으로 1점차로 따라붙었고, 해리스 반스의 3점슛으로 이른 시기에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2쿼터 6분을 넘길 무렵 드레이먼드 그린의 스티븐 아담스를 앞에 두고 돌파 후 슛을 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내는 동시에 아담스의 급소를 가려해 블래그런트 파울을 범했다. 이후 분위기는 급격히 오클라호마 시티

/김민근기자

쪽으로 넘어갔다.

그린은 물론 스테픈 케리와 클레이 탐슨 등 골든스테이트 '황금 트리오'의 슛이 번번히 람을 외면하는 사이 오클라호마 시티는 무려 24점을 폭발시키며 72-47로 전 반을 크게 앞섰다.

전반이 끝날 때까지 5분여 동안 골든스테이트는 5득점에 그쳤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무려 24점을 폭발시키며 72-47로 전반을 크게 앞섰다.

3쿼터 들어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이 활기를 띠었지만 오클라호마 시티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3쿼터 2분여가 남았을 때 점수는 39점차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승부가 갈린 상황에서 4쿼터는 벤치 멤버들의 몸풀기 장이 됐다. 양팀은 주전들의 체력 인배에 신경쓰며 일찌감치 4차전을 준비했다.

골든스테이트는 커리(24점·3점슛 3개)와 탐슨(18점·3점슛 2개)이 듀란트와 웨스트브룩 콤비의 대결에서 완패했다. 둘은 19개의 3점슛을 던져 5개를 넣는데 그쳤다.

그린은 야투 9개를 던져 단 1개만 성공시키는 등 6점 4리바운드로 부진했다. 이날 경기 승부차였던 2쿼터 중반 블래그런트 파울 이후 냉정함을 잃으며 경기를 망쳤다.

윤빛가람, 슈틸리케호승선...손흥민·기성용도 합류

맞춰진 천재 윤빛가람(26·엔벤 푸더)이 처음으로 슈틸리케호에 승선했다. 슈틸리케호의 단골손님인 손흥민(24·토트넘)과 기성용(27·스완지 시티)도 엔트리에 합류했다.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은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페인과의 2연전에 나설 20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윤빛가람이다.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천재로 통하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윤빛가람은 조광래(62) 현 대구FC 단장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던 시절 주축 선수로 활약했지만 이후 부진을 겪으면서 태극미리와 멀어졌다. 제주 유나이티드를 떠나 중국 무대에서 새 출발에 나선 윤빛가람은 리그에서의 활약을 앞세워 대표팀 복귀를 일궈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과 기성용은 무난히 부름을 받았다.

/김민근기자

바르셀로나, 국왕컵 우승...통산 28번째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국왕컵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바르셀로나는 23일 오전 4시30분(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린 2015~2016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세비야를 2-0으로 꺾었다. 바르셀로나는 통산 28번째 국왕컵 우승이다.

올 시즌에는 프리메라리가 우승에 이어 두 번째 우승컵이다. 지난 19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랐던 세비야는 야심차게 국내 무대 정복을 노렸으나 바르셀로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루이스 엔리케 바르셀로나 감독은 "시즌의 멋진 마무리였다. 선수들이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